

마태오 복음서 18장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마르 9,33-37; 루카 9,46-48)

- 1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 2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 3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 1) 여기서 ‘어린이’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답하여 사람들 가운데에 서 있을 정도로 큰아이를 뜻한다. ‘어린이’가 무죄함이나 순수함, 또는 도덕적 완전성의 본보기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과 달리 이들은 자부심이나 자만심이 없다. 그들은 전적으로 남에게 종속된 존재, 남에게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이다.¹⁾
- 2) 따라서 제자들 질문은 자신들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자부심이나 자만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진정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 4) 하늘나라에 들어감은 회개에서 출발한다.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 5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권고하신다. 그것이 곧 스승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겸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다.²⁾ 그리고 모든 덕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마르 9,42-48; 루카 17,1-2)

- 6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21쪽, 각주 1.

2) 마태 20,26-27 :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7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 1)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이들을 죄짓게 하는 자는 중범죄자임을 선언하신다. 불행은 하느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 2) 세상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이들을 비롯한 남을 죄짓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불행하다.

8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9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 1)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을 뿌리 뽑으라는 말씀이다. 곧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는 것이다.
- 2)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 곧 영원한 생명에 동참함을 뜻한다.³⁾
- 3)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⁴⁾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10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11)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⁵⁾

- 1) 작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하느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격을 지니고 있기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 2) 천사들은 작은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존재들이다. 작은 이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천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3) 앞, 122쪽, 각주 7.

4) 1코린 6,19-20 :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5) 사도 12,15 :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히브 1,14 : 천사들은 모두 하느님을 시종드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게 될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이 아닙니까?

지위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작은 이들을 가장 많이 생각해 주어야 한다.⁶⁾

되찾은 양의 비유(루카 15,3-7)

-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 13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 1)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양”이 ‘길을 잃은 것’으로 나오지만, 루카 복음서에는 ‘잃어버린 양’으로 되어 있다. 루카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들을 찾아내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반면에 마태오는 “이 작은 이들”을, 멸시받거나 규정 같은 것이 너무 엄격하여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길을 잃을 위험이 있는 구성원들로 여긴다. 길을 잃음은 도덕적인 것이라기보다 교리적이라 할 수 있다.⁷⁾
- 2)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그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큰 기쁨이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루카 17,3L)

-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6) 앞, 각주 8.

7) 위, 각주 10.

2티모 3,13 :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험잡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1요한 1,8 :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2,26 :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3,7 :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묵시 12,9 :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19,20 : 그러다가 그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둘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습니다.

16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⁸⁾

17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1) ”형제“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 곧 같은 교우를 말한다.⁹⁾

2)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형제적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시도를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하라고 권장하시는 것이다.¹⁰⁾

3) ”얻는다“라는 것은 그 형제를 다시 신앙으로 끌어들이거나 개인적인 우정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거나 공동체에서 제명당하려고 하는 구성원을 다신 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¹¹⁾

4)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라는 말은 ‘너는 이제 상관하지 마라. 이제는 네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이다.¹²⁾ 곧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의 권한’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 곧 공동체 모임 또는 사도단(使徒團)에게 부여된다.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19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¹³⁾

20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8) 2코린 13,1 : 나는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갑니다.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1티모 5,19 :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원로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9) 위 123쪽, 각주 12.

10) 위 각주 14 참조.

레위 19,17 :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신명 19,15 :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11) 위, 각주 15.

12) 위, 각주 18.

13) 야고 1,5 : 여러분 가운데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1요한 3,22 :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1)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교회와 결합하여 있는 공동체 곧 예수님께서 현존하시는 공동체를 뜻한다.
- 2)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따라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¹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루카 17,4)

-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¹⁵⁾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웃에 대한 용서는 끝이 없다는 말씀이다.

매정한 종의 비유

-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섬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 24 임금이 섬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없는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멍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

14) 요한 14,12-14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15) 창세 4,24 : 카인을 해친 자가 일곱 곱절로 앙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일흔일곱 곱절로 앙갚음을 받는다.

에게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빛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¹⁶⁾

1) 그리스 화폐단위로 한 탈렌트는 6,00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단위로 셈하면 한 데나리온으로서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만은 고대 근동에서 계산할 때 가장 높은 단위의 수이고 탈렌트는 가장 큰 화폐단위다. 그래서 ”만 탈렌트“는 그야말로 엄청난 액수로서 이만큼 빛을 진 종은 가망이 전혀 없고 오로지 주인의 자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 앞에서 인간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가르침이다.¹⁷⁾

2)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또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이웃에게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16) 에페 4,32 :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콜로 3,13 :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17) 앞, 124쪽, 각주 24.